

2. 2000년도 취득세·등록세 신고납부실태

2000. 1. 1 ~ 9. 30까지의 개인간 거래사례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대비 취득세·등록세 신고가액 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주로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의 주 적용대상인 개인-개인간 거래가 전체 거래건수의 84.0%인 1,516천건이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법인간 거래, 법인-개인간 거래가 16.0%인 288천건에 해당되었다.

<거래유형별 분포현황>

구 분	계	개인-개인간	법인-개인간	법인-법인간
계	1,804,081 (100%)	1,515,977 (84.0)	265,177 (14.7)	22,922 (1.3)
취득세	851,671 (100%)	712,307 (83.6)	128,852 (15.1)	10,512 (1.3)
등록세	952,410 (100%)	803,670 (84.4)	136,325 (14.3)	12,410 (1.3)

개별공시지가 대비 신고수준도 전체 거래건수 1,804천건중 공시지가의 100% 이상 및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 937천건(52.0%)이며, 여기에 90%~100%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공시지가의 90%이상 신고가 1,374천건(76.2%)인 반면, 개별공시지가의 80%수준이 145천건(8.0%), 80%~90% 미만이 286천건(15.8%)로서 공시지가의 90% 미만 신고가 431천건(23.8%)에 해당된다.

또한 개인-개인간 거래의 신고가액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거래건수 1,516천건중 공시지가의 100% 이상이 649천건(42.7%)이며, 여기에 90~100%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1,086천건(71.7%)이 공시지가의 90%이상 수준으로 신고한 반면, 개별공시지가의 80% 수준이 145천건(9.5%), 80%~90% 미만이 286천건(18.8%)으로 공시지가의 90% 미만 수준 신고가 431천건(28.3%)이었다.